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 처분…약 2조원 규모

최수빈 기자 [✉](#) | Edited by 이상은 팀장 [✉](#)

입력 2026.01.18 21:03

가 가

상속세 납부·대출금 상환 목적



(그래픽=윤수민 기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를 처분한다.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일 종가인 13만9000원을 기준으로 약 2조850억원 규모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처분 금액은 계약 당시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 규모로,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는 오는 4월이다.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신한은행



토큰증권 법 테두리 들어와도…빛 보기까지 산 넘어 산



이하은 기자

입력 2026.01.18 07:00

가 가

취재노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성 시비에 장외거래소 인가는 제동



토큰증권(STO)은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STO 법제화 논의 3년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장외거래소를 통해 전자증권처럼 거래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담담한 모습이다. 심사 공정성 문제로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매력적인 기초자산을 가진 발행사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토큰증권(STO)은 조각투자의 일종으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주식,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심을 받았다. STO는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증권사로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한 가지 증가한 셈이다. 주요 수익 모델로는 거래 중개에 따른 매매 수수료, 토큰증권이 상장 시 상장주관수수료 등이 거론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2022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STO 시장 맞이에 나섰던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법제화가 완료된 지금 증권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아직 사업이 가시권에 들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먼저 STO를 유통하는 장외거래소 인가가 늦어지면서 시장 출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정성 시비가 휘말리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당국은 이중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내 줄 계획이다.

증권사들도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참여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흥국증권 등),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양증권 등), 루센트블록 컨소시엄(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등으로 꾸려졌다.

업계에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최근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예비인가가 지연되면서 연내 개시를 목표로 했던 장외거래소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STO 상용화가 수년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조각투자 자산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을 발굴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업계는 이를 통해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라는 개념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를 기대해선 안되고, 어떤 발행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이자 투자처로서 떠오르면서 STO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부동산, 저작권, 그림 등 비정형적 자산을 중심으로 했다. 일반 투자자가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행인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등의 시장은 국채, 금,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유통 인프라가 갖춰지더라도 실제로 토큰화하여 내놓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기초자산이 부족하다"며 "향후 국내에서는 STO를 시작으로 실물자산연계자산(RWA) 생태계로 확장될 필요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 3월 본입찰…신한·한국투자 참전 여부 ‘주목’

임지수 기자 [✉](#) | Edited by 이재영 부장 [✉](#)

입력 2026.01.18 07:00

가 가

코람코, 2월 공고 후 3월 본입찰…여의도 ‘최대 매물’ 부상
 신한자산운용·한국투자리얼에셋 등 잠재 매수자로 거론
 유력 인수 후보 하나證 존재 속에 치열한 수싸움 예상



(그래픽=윤수민 기자)

여의도 오피스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하나증권 사옥 매각 절차가 내달 본궤도에 오른다. 하나증권이 이미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입찰 결과를 보고 최종 매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신한자산운용과 한국투자리얼에셋 등 대형 금융지주 계열 운용사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력한 원매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실제 입찰에서 어느 정도의 인수의지를 보일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도인인 코람코더원리츠와 매각주관사 세빌스코리아는 오는 2월 중 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3월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하나증권이 코람코더원리츠에 사옥 우선 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015년 하나증권으로부터 해당 사옥을 약 4300억원에 매입했으며, 이후 자산을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는 2022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하나증권은 2020년 12월 리츠 측과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딜을 여의도 내에서 가장 주목하 만한 투자 건으로 꼽는다. 해당 부지는 용적률 여유가 있어 재건축 가치가 상당한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의 용적률은 약 600% 수준으로 법정 최대치인 1200%의 절반에 그친다. 이 때문에 공개입찰이 본격화될 경우, 복수의 개발 주체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잠재적 후보군 중 하나로는 신한자산운용이 꼽힌다. 신한자산운용은 그간 부실채권(NPL), 부동산 PF대출, 우선주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집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실물 오피스 자산 매입도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이 하나증권 사옥의 입지와 개발 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의도 내에서 검토해 볼 만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자산운용이 실물 오피스 매입을 중단한 지 다소 시일이 지난 만큼, 이번 건을 통해 시장 복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증권이 이미 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하나증권의 임대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건축 시점까지를 내다보는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운용 시나리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역시 시장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인접한 한국투자증권 사옥과 통합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두 부지를 통합 개발하면 현재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TPE타워를 상회하는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측이 과거 TPE타워 완공 시점에 자체 재건축 여부를 검토했으나, 내부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고려해 투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져 실제 참전 여부는 유동적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이번 입찰에 다수의 운용사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나증권이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강력한 원매자가 존재하는 셈이어서 실제 입찰 참여를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나금융그룹의 자본력을 고려할 때, 자칫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나증권이라는 유력한 원매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찰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할지, 실제 인수가 가능할지를 두고 분위기를 가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하나증권의 셈법도 복잡하다. 여의도 IB 거점 유지라는 전략적 목적이 뚜렷해 매수 명분은 충분하지만, 공개입찰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하나금융그룹이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접 인수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시장에서는 하나증권 사옥의 거래 가격이 3.3㎡(평)당 3200만~3500만원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총 매각가는 약 7000억~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증권은 우선 공개입찰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 가격과 투자자 모집 분위기를 면밀히 살핀 뒤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제3자가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하나증권은 임차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거나, 재건축 이익을 직접 향유하기 위해 과감한 베톱에 나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매도인인 코람코더원리츠는 이번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신규 수익형 자산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람코 측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자산관리(CPM) 운용사로 세빌스코리아를 선정하고, 코람코라이프인 프라리츠·코람코더원리츠·이리츠코크렙 등 3개 상장 리츠가 보유한 자산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주유소, 호텔, 오피스, 물류센터 등 각 리츠에 분산된 자산들에 대한 통합 자산관리 및 임대운영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확실한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자산인 만큼, 오는 3월 본입찰을 앞두고 잠재적 후보들 사이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신한은행



"IT 넘어 CEO 어젠다로"…대형 회계법인들, '보안 컨설팅' 각기 다른 승부수

박미경 기자 [✉](#) | Edited by 이도현 부장 [✉](#)

입력 2026.01.18 07:00

가 가

HOUSE 동향

실질적인 리스크 경감·보안 강화 위한 문의 늘어
 삼일, 'OT 보안 랩' 별도 운영…안전은 인력 충원
 삼정, AI 활용…정보보호 공시 준비 기간 90% 단축



(그래픽=윤수민 기자)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IT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 경영 리스크로 떠올랐다. 대형 회계법인들도 늘어나는 보안 관련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꾸리거나 확장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도 시장 체감 온도와 전략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PwC컨설팅은 보안을 전사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특화 조직인 'AI트러스트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70여명의 산업별 보안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AI트러스트 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PwC는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인증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하자 형식적 컴플라이언스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리스크 경감과 보안 강화를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형 해킹사태 이후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평가다.

삼일PwC 관계자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CEO 어젠다로 인식하며, 전사 보안 전략을 다시 짜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IT, 반도체, 조선, 방산 등에서 핵심 기술이나 기밀 유출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권에서는 망 분리 완화 흐름 속에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모든 접속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보안 전략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삼일PwC는 단순 컨설팅 외에도 국내 유일 수준의 'OT(운영기술) 보안 랩(Lab)'을 운영하고 있다. 10여 명의 OT 보안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국내외 생산, 제조 현장을 다니며 OT 보안 진단과 개선을 돋고 있

다.

삼정KPMG는 디지털본부 산하에 70여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팀을 두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단일 조직 기준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해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보호 공시, 인수합병(M&A) 등 삼정KPMG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사이버 보안 자문을 결합해 서비스의 질적·양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

삼정KPMG 관계자는 "해킹 사고 이후 사이버 침투 테스트와 정보보호 종합 진단, 중·장기 전사 컨설팅 까지 전반적인 수요 확대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정KPMG의 차별화 요소는 인공지능(AI) 활용이다. AI 기반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비용 분류, 인건비 산정 등 공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 준비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90%까지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사이버&리질리언스 통합 서비스 그룹'을 통해 전략, 진단, 개선, 포렌식,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분야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솔루션·시스템 구축 등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재고와 예방을 위한 투자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Y한영은 사이버 보안을 전사 리스크 관리(ERM) 프레임 안에서 다룬다. 독립 조직 확대보다는 대기업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보안을 재무·규제·평판 리스크와 연결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대형 회계법인들, 데이터센터 자문 서비스 조직화 채비



이지윤 기자 [✉](#) | Edited by 이도현 부장 [✉](#)

입력 2026.01.18 07:00

가 가

HOUSE 동향

데이터센터 국내서도 투자자산으로 부상
삼정KPMG, 자문 역량 결집해 조직 출범
삼일PwC도 가세…AI DC TF 운영할 예정
EY한영, AI 조직 산하 DC 자문 부서 운영
딜로이트도 DC 자문 서비스 조직화 논의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내 회계법인들이 데이터센터 자문 서비스를 잇달아 조직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투자 수요가 확대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회계·컨설팅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 자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을 넘어 전력·에너지 인프라와 결합된 복합 투자 대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면서 입지와 건축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력 확보, 인허가, 자본 구조, 세무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 자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이 한국 시장을 차세대 투자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도권 입지 제한과 전력 수급 문제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공급 대비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다. AI·디지털 인프라를 둘러싼 중장기 성장 기대가 유지되는 만큼 당분간 투자 검토와 자문 수요가 늘 가능성이 높단 게 업계 시각이다.

회계법인들도 데이터센터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삼정KPMG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자문센터를 출점시켰다. 진형석 전무가 삼정KPMG 데이터센터 리더를 맡았다. 부동산·인프라·세무 부문에서 윤승구 상무, 홍민성 전무, 박상훈 상무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결집했다.

▲부동산 입지 및 사업성 분석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반 재무 자문 ▲투자 및 세무 구조 최적화로 전문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정KPMG는 데이터센터 자문 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트랙레코드를 축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정KPMG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90%에 해당하는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며 "미국 등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삼일PwC 역시 데이터센터 자문 조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삼일PwC는 에너지트랜지션 플랫폼을 통해 'AI DC Business Center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인프라 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딜 부문의 이운승 상무와 서용태, 한정탁, 박성진 파트너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 활동하고 있으며 PwC컨설팅에서 유원석, 조운희 파트너가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일PwC는 ▲브룩필드DCI의 가산·안산 데이터센터 자문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의 세종텔레콤 데이터센터 자문 등을 수행하며 관련 실적을 쌓아왔다.

회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삼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엔드투엔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재 PwC 글로벌에서는 데이터센터 관련 플랫폼을 구성하고 토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Y한영은 EY AI Hub라는 AI 전문 조직을 출범한 이후, 하위 조직으로 'AI 데이터센터 자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Y컨설팅과 EY한영회계법인의 전략·재무자문부문끼리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민덕기 재무자문본부장과 권규한 전략·재무자문 파트너, 이찬영 EY컨설팅 파트너가 데이터센터 관련 자문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글로벌PE, 펀드, JV, M&A 추진 지원 및 실사 ▲기술 및 MEP 등의 표준화 방향성 자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딜로이트도 데이터센터 전문화 조직 출범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 협업을 통해 ▲투자 유치 자문 ▲사업성 분석 ▲오퍼레이터 유치 자문 ▲운영 전략 수립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관련 각 서비스 라인의 전문 영역에 기반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내 수요 증가에 따라 내부적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자문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데이터센터 관련 조직을 고도화해가겠지만 자문사들이 AI DC 프로젝트 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이 절대적인 제약 요인이라,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기도 어렵고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고 했다.

